빅테크 실적과 FOMC 대기, 셧다운 리스크의 재등장

Market 황산해 _ sh.hwang@ls-sec.co.kr
Quant 고세은 _ kose@ls-sec.co.kr

M7 실적과 FOMC 대기, 대형 기술주가 지탱한 증시

미 증시는 DOW -0.58%, S&P 500 +0.03%, NASDAQ +0.28%, Russell -1.82%로 혼조세. 잔존한 대내외 리스크(이란, 그린란드 등)와 다가올 대형 이벤트(빅테크 실적, FOMC 등) 경계하며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. 나스닥 100 이 +0.3% 상승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M7 의 경우 1.1%가량 상승. 반면 신고가 랠리의 러셀은 낙폭 큰 모습. 한편 주말간 대두된 미 정부의 1/31 셧다운 가능성 급증과 캐나다향 관세 리스크는 향후 리스크오프 심리 자극 요인으로 경계

11 개 섹터 중 소재(+0.9%), 경기소비재(+0.7%), 필수소비재(+0.7%), 에너지(+0.6%), IT(+0.5%) 등 7 개 섹터 강세. 각 섹터에서 아마존(+2.1%), 마이크로소프트(+3.4%) 등이 지수를 이끄는 모습. 엔비디아(+1.6%)는 중국향 H200 수출 기대감 반영되며 강세

미 국채 금리는 2Y 3.59%(-1.2bp), 10Y 4.23%(-2.0bp)로 하락. 유가는 WTI 기준 +2.88% 급등한 $61.07 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감 반영. 금도 +1.04% 상승한 온스당 $4,987 기록. 미국 윈터스톰 여파로 급등했던 천연가스도 +4.56%로 상승세 지속

M7 실적발표 예정, AI 사이클 연장 여부 결정

M7 중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테슬라(1/28), 애플(1/29)의 실적발표가 금주 예정. 당사는 주요 관전 포인트로 하이퍼스케일러(빅테크)의 이익 증가율 반등을 주목. 빅테크들의 CAPEX/OCF 비율이 60~70%에 도달, AI 투자 주체의 비용부담 및 수익화 의구심으로 이어지며 버블론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. 현 상황에서 CAPEX 를 줄이면 AI 회의론, 늘리면 버블론 강화되기에 해답은 OCF 와 이익의 성장률 반등일 것

이외 AI 확산의 척도인 IBM, 서비스나우, SAP 등 MSP, S/W 업종을 비롯해 1/29 에는 강한 메모리 모멘텀 영위 중인 웨스턴디지털, 샌디스크 실적도 예정

미 셧다운 리스크, 3 개월만에 재등장

주말간 대내외 불확실성 리스크 급증. ①1/31 미 정부 셧다운 가능성 급등, ②미국의 캐나다 관세 부과 위협 등. 1/24 일 Polymarket 상 1/31 셧다운 확률이 9%→79%로 급등. 미네소타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(ICE)에 의한 2 번째 총격 사망 사건 발생.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패키지에 100 억달러의 ICE 지출과 644 억달러의 국토안보부 지출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반대의견 제시.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강경한 의지 표출. 이달 7 일 미네소타주에서 총격 사망사건 발생 이후 대규모 시위 발생했는데 또 다른 사망자 등장하자 갈등 격화. RealClearPolitics 상 트럼프 지지율은 1 월 중 44..3%에서 42.2%로 하락

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-중국간의 FTA 추진을 경계하며 캐나다향 100% 관세 부과 의지를 피력. 캐나다는 25 일 FTA 체결의도가 없다고 밝혔으나 트럼프는 여전히 캐나다와 중국 관계를 경계. 25 일에도 우려와 비판이 섞인 SNS 글을 게시

Global 주요 증시

주요국가	전일 종가 (pt)	장중 추이	수익률 (%)				
			1D	1W	MTD	1M	YTD
DOW	49,098.71		-0.58	-0.53	2.15	1.35	2.15
S&P500	6,915.61		0.03	-0.35	1.02	0.08	1.02
NASDAQ	23,501.24		0.28	-0.06	1.12	-0.26	1.12
Russell 2000	2,669.16		-1.82	-0.32	7.54	5.04	7.54
Stoxx 600	608.34		-0.09	-0.98	2.73	3.33	2.73
영국(FTSE)	10,143.44		-0.07	-0.90	2.14	2.57	2.14
상해종합	4,136.16		0.33	0.84	4.22	5.51	4.22
홍콩H	26,749.51		0.45	-0.36	4.37	3.78	4.37
니케이225	53,846.87		0.29	-0.17	6.97	6.81	6.97
KOSPI	4,990.07		0.76	3.08	18.41	21.20	18.41
KOSPI 200 선물	728.90		0.91	1D 수익률은 미국 증시 개폐장 시점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			
KOSDAQ	993.93		2.43	4.12	7.40	8.09	7.40
인도(NIFTY)	25048.65		-0.95	-2.51	-4.14	-4.31	-4.14

FICC

구분	전일 종가 (pt)	20D 추이 Daily	변동(bp, %)				
			1D	1W	MTD	1M	YTD
미국채 2년(%)	3.59		-1.2bp	0.8bp	12.1bp	6.2bp	12.1bp
미국채10년(%)	4.23		-2.0bp	0.2bp	5.8bp	6.2bp	5.8bp
국고채3년(%)	3.13		3.3bp	4.9bp	17.9bp	17.0bp	17.9bp
일본10년(%)	2.25		1.1bp	6.6bp	18.9bp	22.1bp	18.9bp
달러인덱스(pt)	97.60		-0.77	-1.80	-0.74	-0.35	-0.74
NDF 환율(1M)	1444.57		-1.23	-1.89	0.36	-2.31	0.36
유로/달러	1.18		0.62	1.98	0.70	0.28	0.70
위안/달러	6.96		-0.08	-0.10	-0.37	-0.94	-0.37
엔/달러	155.70		-1.71	-1.53	-0.64	-0.34	-0.64
WTI(NYMEX)	61.07		2.88	2.92	6.73	5.06	6.73
천연가스	5.28		4.56	70.00	43.11	35.40	43.11
구리(LME)	13079.55		3.09	1.93	5.01	8.18	5.01
금(NYMEX)	4987.49		1.04	8.52	15.47	11.22	15.47

특징주: 임박한 NVDA 중국 수출 재개, AMZN 인원 감축

엔비디아: NVDA — +1.6%, 중국 H200 수출 재개 기대

중국 리스크 완화에 따른 주가 강세. 주 요인은 **①중국의 H200 주문 지시 소식, ②젠슨 황의중국 방문 계획**. Bloomberg에 따르면, 중국 규제당국이 알리바바, 텐센트, 바이트댄스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H200 칩 주문 준비를 지시.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으나, H200 승인 조건으로 화웨이, 캠브리콘 등 일정량의 자국산 AI 칩 구매를 동시 권고할 계획. 한편 젠슨황의 중국 방문 소식도 주목. Reuters에 따르면, 토요일 엔비디아 중국 행사에 참여한 이후, 베이징→선전→대만으로 이동할 계획. 작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수출 허가 이후, 중국 스탠스는 관세 갈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. 다만 일련의 이슈 감안하면 완화적 흐름 보이는 상태

아마존: AMZN — +2.1%, 대규모 인력 감원

대규모 인력 감원 보도되며 주가 강세. 금번 감원은 지난해 시작된 3만 명 감축 계획의 연장선. 해당 규모는 본사 인력의 10%에 해당하며, 앞서 1.4만 명(1차)이 우선적으로 해고된 바 있음. Reuters는 금주부터 진행될 2차 감원 규모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. **해당 사안의 배경에는 AI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중**. AI 개발비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과, AI 도입에 따른 인력 효율성 확대 차원. **다만 CEO는 금번 감원이 AI와 무관함을 언급. 즉 회사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설명**

인텔: INTC — -17.0%, 가이던스 발목 잡는 공급

전일 장 마감 후 4FQ25 실적 발표. 매출 $13.70B, EPS $0.15로 컨센(매출 $13.41B, EPS $0.08) 상회함. 다만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로 주가 급락. 1FQ26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$11.7B~$12.7B로 제시해 컨센($12.5B) 하회. **가이던스 부진의 원인은 인텔 측 제품 공급 문제. CFO는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지 않아,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언급**. 이어 해당 공급 상황이 2분기 중 개선될 것으로 전망. 동사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높았던 점도 감안할 필요. 실적발표 이전 1Y 수익률은 약 +140%에 달했음. 미 정부의 밀어주기, 높은 AI 수요 등이 그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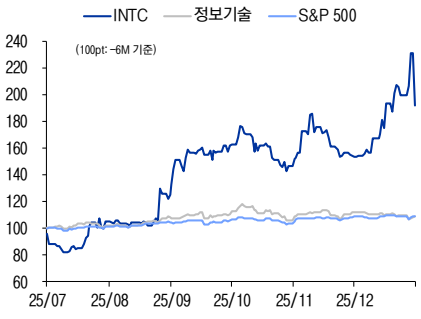
캐피털원파이낸셜: COF — -7.6%, 수익성 논란 속 Brex 인수

4FQ25 실적발표. 매출 $15.58B, EPS $3.86으로 컨센(매출 $15.48B, EPS $4.11) 대비 매출 상회, EPS 하회. **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과 마케팅 및 운영 비용 증가에 따른 효율성 지표 악화가 주목됨**. 한편 핀테크 기업 Brex 인수도 함께 주목. 발표에 따르면 $5.15B 규모 인수 계약이 최종 체결. 이는 Brex의 AI 네이티브 결제 등과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함. 다만 인수 대금의 50%를 신주 발행 방식으로 조달해 지분 희석 리스크와 향후 2년간 자사주 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 대두. 지난해 디스커버리(DFS) 인수에 이은 대형 M&A로 인해 통합 비용 가중 우려도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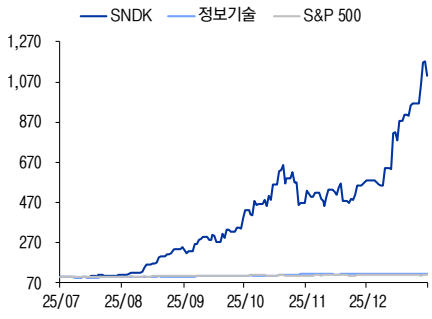
기타 코멘트 — NFLX(+3.0%), SNDK(-5.9%), ALK(+4.1%)

넷플릭스(+3.0%)는 실적발표에 따른 주가 급락 이후, 광고 부문 등 견고한 성장률 기대감 바탕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. **샌디스크(-5.9%)**는 장기간의 상승세 중단 후 차익 실현 움직임. 최근 공매도 잔고 확대된 점도 함께 주목. **알래스카에어 (+4.1%)**는 프리미엄 항공 수요 증가 및 국제선 확대로 컨센 상회한 실적 발표

인텔: INTC



샌디스크: SNDK



● S&P500 섹터 수익률

순위	섹터 Top 세부업종	수익률(%) 1D	Bottom 세부업종	수익률(%) 1D
1	소재	0.86		
	용기/포장지	3.00	건축자재	-1.03
2	자유소비재	0.73		
	대규모 소매업	2.01	가정용 내구재	-1.95
3	필수소비재	0.65		
	담배	1.66	개인관리용품	-0.55
4	에너지	0.61		
	석유/가스/소모연료	0.71	에너지 장비/서비스	-0.38
5	정보기술	0.54		
	S/W	2.27	전자 장비 기기/부품	-1.50
6	부동산	0.30		
	주택용 리츠	1.14	부동산 관리/개발	-0.71
7	커뮤니케이션 서비스	0.14		
	엔터테인먼트	1.32	양방향 미디어/서비스	-0.05
8	유틸리티	-0.40		
	가스 유틸리티	-0.04	수도 유틸리티	-1.41
9	건강관리	-0.56		
	생명공학	0.49	생명과학 도구/서비스	-2.15
10	산업재	-0.80		
	복합기업	0.18	무역회사/판매업체	-2.37
11	금융	-1.38		
	보험	-0.12	소비자 금융	-4.06

● 종목 수익률 상하위 TOP 5 (%)

	UP	1D	DOWN	1D
1	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	6.4	인텔	-17.0
2	포티넷	5.2	캐피털 원 파이낸셜	-7.6
3	스머핏 웨스트록	4.8	모더나	-6.1
4	길리어드 사이언스	3.7	샌디스크 /DE	-5.9
5	서비스나우	3.5	웨스트 파마수티컬 서비	-4.5

● ETF 수익률 상하위 TOP 5 (%)

	UP	1D	DOWN	1D
1	SIVR	6.6	ALTS	-4.8
2	SLV	6.6	ARKG	-4.7
3	PLTM	5.1	KRE	-3.3
4	PALL	5.0	KBE	-3.1
5	MSOS	5.0	PSI	-3.1

● ETF 거래량 상위 유니버스: 수익률 TOP 10

	Top ETF	추이	1D
1	AGQ		13.8
2	BOIL		8.2
3	BOIL		8.2
4	LABD		7.9
5	MSOX		7.1
6	MSFX		6.9
7	SIVR		6.6
8	MSFL		6.2
9	SRTY		5.6
10	TZA		5.4

● 테마 ETF 수익률 (%)

	테마	Ticker	1D	20D 추이
1	대마	MSOS	5.0	
2	디지털 경제	BITQ	2.5	
3	천연가스	NANR	1.3	
4	비디오 게임&eSports	ESPO	1.1	
5	재생에너지	FAN	1.0	
6	핵에너지	URA	0.8	
7	농업	MOO	0.6	
8	웰니스	ECON	0.4	
9	인프라	GRID	0.4	
10	환경	ERTH	0.3	